

Hana Infinity



2026 May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4월 동향

WGBI 편입 자금 유입이 국고채 시장 안정에 영향 미치며 금리 하락 출발 후, 중동전쟁 협상 진전 기대와 한은 총재에 대한 중립적 기대 등이 반영되었으나, 이후, 1분기 성장세의 서프라이즈와 매파적 연준 기조 반영 속 상승 전환 마감

- 월 초, 중동 전쟁 조기 종전 기대감 속 WGBI 편입 자금 유입으로 금리 하향 안정 출발 후, 트럼프의 재차 대이란 공세 지속 의지 피력 등으로 급등세 전환. 이어 45일간 휴전 추진 계획 소식이 전해지며 국고채 시장 재차 강세 시현 후, 실제 2주 휴전에 국제유가 급락 반영하며 금리 하락 추세 지속. 여기에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월 초, 중동 전쟁 조기 종전 기대감 확산과 함께 WGBI 편입 관련한 외국인 자금의 국고채 시장 유입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3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시장 예상 하회로 시장에 안도감이 나타났으나, 트럼프의 전쟁 지속 의지 연설 이후 급등세로 전환한 영국

· 여기에 미 3월 고용보고서 서프라이즈에 의한 미 국채금리 상승 반영되었지만, 이내 45일간 휴전 소식이 전해지며 국고채 시장 강세 시현. 이후 실제 미-이란 2주간 휴전 소식과 유가 하락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중동 경계감 강화되며 상승 전환한 국면 시현
- 중반, 미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협상 합의 진전 시사와 미 PPI 물가의 시장 전망 하회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이후, 미-이란 협상에 대한 기대와 경계감 상존하는 대외 분위기 속에, 대내적 한은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매파적 기조의 시장 인식 등이 반영되며 상승 전환 흐름 시현

· 중반, 미-이란 협상 결렬과 이란 해상 봉쇄조치 등의 영향에 금리 상승 흐름 후, 밴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합의 진전 결과 소식이 이어지며 시장 안도감이 확대된 가운데, 미 PPI 시장 전망치 하회 소식 등이 반영되며 국내외 금리 하락 국면으로 전환

· 이어, 대외적 미-이란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와 경계심리가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의 매파적 분위기가 다소 포착됨에 따른 영향 반영과 외국인 투자자 매도 영향에 따라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 흐름 시현
- 후반, 중동 이슈 종전 기대감과 한은 총재 취임사에 대한 중립적 시장 기대 등이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국내 1분기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나타냄에 따른 영향 반영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큰 폭 상승. 이어 연준의 매파적 금리동결 결정 속 국제유가 급등에도 WGBI 자금 유입 영향에 따라 국고채 금리 상승세 제한되는 양상 속 마감

· 후반, 미-이란의 협상에 대한 종전 기대 재차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한은 총재 취임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중립적으로 반영되며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이어 발표된 국내 1분기 성장률 결과가 1.7%의 서프라이즈를 나타냄에 따라 올해 2% 초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탄력을 받으며 국고채 금리 큰 폭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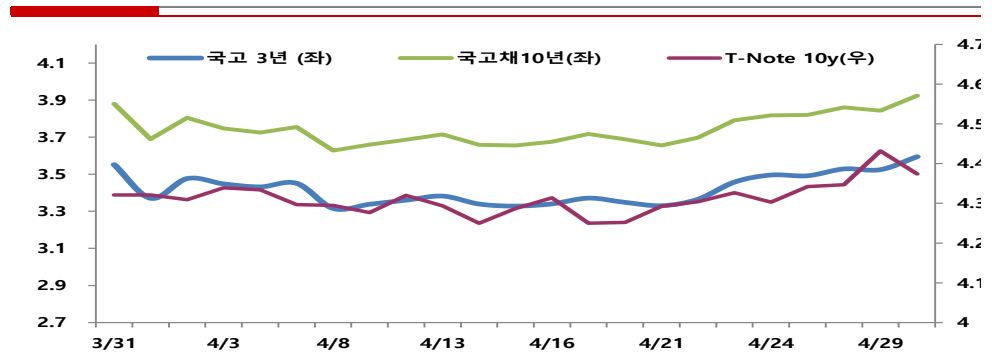
· 이어, 연준의 4월 매파적 금리 동결 결정 속에 국내 유가 급등 영향이 약세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게 만들었으나, WGBI 자금 유입 등의 요인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다소 제한되는 흐름 속에 마감

4월 평균

국고채(3년): 3.41%

T-Note(10년): 4.31%

주요 시장금리 추이



5 월 전망

물가 중시 기조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는 연준의 매파적 동결 기조 예상 속 대내적 성장 모멘텀 강화 등이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WGBI 편입에 따른 추종 자금 유입 확대 가능성은 금리 상단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19	3.5 ^(f)	3.45 ^(f)	3.3 ^(f)

- 연준은 장기인플레이션이 2% 부근에 고정된 반면, 단기 인플레이션은 향후 3~4개월 시차를 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 특히, 4월 FOMC에서 3인의 매파적 색채 강화와 최근 경제활동이 AI 생산성 혁신을 기반으로 확장 국면이라는 점은 중등 전쟁 종전 가능성의 불확실성까지 고려 시, 매파적 동결 기조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최근 물가에 대한 연준의 판단이 장기인플레이션은 2% 부근 고정인 반면, 단기는 향후 3~4개월 시차를 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4월 FOMC에서의 3인 위원의 매파적 색채 강화 등으로 통화완화 기조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최근 경제활동이 AI 혁신을 기반으로 확장 국면이라는 측면과 중등 이슈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 속에 유가 변동성 등을 고려 시 매파적 동결 기조가 탄력 받겠지만,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높아졌다는 측면에 대한 시장의 완화 기대 등은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미-이란의 전쟁 해소를 위한 협상 국면이 지지부진한 국면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가 변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강화에 영향을 미칠 측면은 국내외 금리의 상방 요인으로 판단. 반면, WGBI 편입 이후, 자금 유입이 이어짐에 따른 외국인 수요 강화 움직임 등이 국고채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중등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위한 협상 국면이 시장 예상보다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이는 불안 확대 시점에 유가 변동성을 빈번하게 확대하면서 미국 외 주요국가에 대해서도 긴축적 매파 영향 강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 반면, WGBI 편입 이후 자금 유입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수요 강화 움직임 등은 국고채 금리 상단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최근 중등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100달러 선 상회로 국내 수요 둔화 우려가 상존하나 1분기 GDP 성장을 서프라이즈에 의한 성장을 전망치 상향 속 하반기 내수, 수출 진작 기대 등이 금리 상방 요인으로 예상. 다만, 중등 정세에 따른 고유가 부담에도 민생안정 중시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 가능성에 따른 한은 통화정책 기조 등은 국고채 금리 상단 제한 전망

 - 중등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상회하며 국내 수요 부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 그럼에도 1분기 GDP 성장률의 서프라이즈에 의한 올해 성장 전망 상향 이슈 속에 정부 추경 지출에 의한 하반기 내수와 수출 진작 기대 등이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다만, 중등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고유가 부담 전망 속 물가의 점진적 상승 기조 예상에도 민생안정 고려한 중립적 통화정책 운용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한은 정책 기조 등이 국고채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5월 전망
3.45%~3.65%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단기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시사 · 대내적 성장 모멘텀 강화 속 정부 지출에 의한 하반기 내수, 수출 진작 기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 총재 취임 후, 금융안정 및 민생 경제 안정 중시의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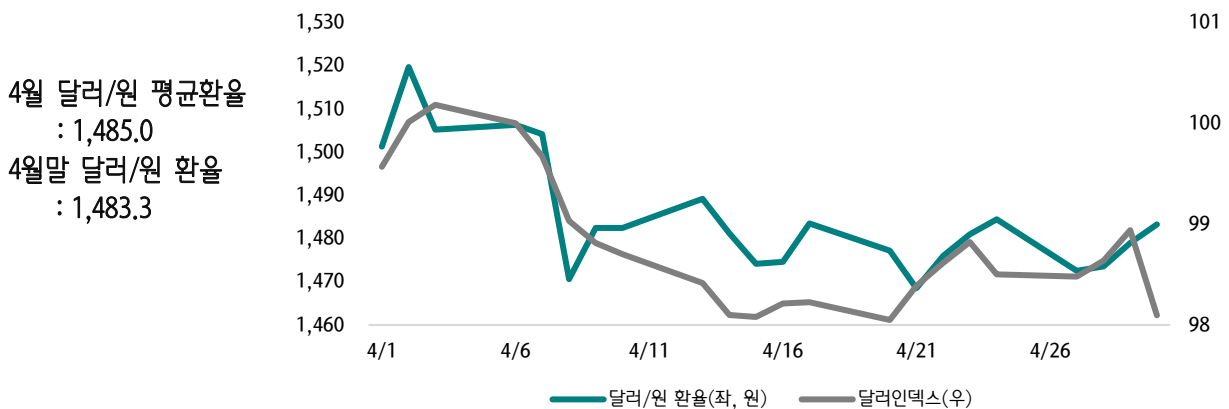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4 월 동향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소식에 환율은 1,500원 아래로 내려왔으나, 이후 협상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며 위험회피 심리 및 유가 방향성이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 환율은 1,470~80원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시현

- 월초, 미-이란 갈등 격화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환율은 1,500원선에서 지지력을 형성하는 듯 했으나, 중동 내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휴전 합의 결정이 시장 불안감을 완화시키면서 환율은 1,400원 후반대로 하락**
 - 미국과 이란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전 기대감 확산된 가운데, 특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 거론되자 환율은 큰 폭 하락 출발. 그러나 양국 간 산발적 군사 충돌과 트럼프 대통령 강경 발언 등 대치 국면 부각됨에 따라 1,500원대에서 지지된 형국
 -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하자 달러인덱스와 국제유가가 동시에 하락, 이에 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며 환율은 1,470원대까지 30원 넘게 급락. 하지만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경계감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환율도 상승 전환
- 월 중반, 중동 사태에 대한 낙관론과 경계심이 공존하며 환율은 방향성 없는 등락을 반복.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로 하단 지지된 가운데, 협상 관련 소식에 따라 1,470~80원대의 박스권 내 움직임을 시현**
 - 중반 들어, 미-이란 중전 협상 결렬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등에 위험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되며 환율은 1,500원선에 근접했으나, 이후 양측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며 시장의 불안이 완화된 가운데 환율도 상승폭을 반납
 - 미-이란 협상의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달러 강세를 견인, 여기에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배당 역송금 경계감까지 더해지면서 환율은 상승 전환. 하지만 2차 대면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자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며 환율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형국
- 후반, 미-이란 협상 교착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도로 환율 상방 압력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업체 고점 매도 물량 유입에도 매파적 FOMC 영향에 따른 강달러가 반영되며 1,480원대에서 마감**
 - 후반, 미-이란 2차 협상이 결렬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와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로 환율은 재차 상승 전환한 가운데, 한국 1분기 GDP 서프라이즈라는 긍정적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오름세에 원화 약세 지속되며 1,470~80원대에서 등락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와 이란의 강경 대응으로 경계심리 지속되는 가운데, 월말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에도 불구하고 매파적 FOMC 여파에 따른 미 국채금리 급등과 달러 강세 영향 속 상방 압력을 받으며 1,483.3원에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5 월 전망

중등 리스크가 상수로 자리잡으며 환율 민감도 완화됨에 따라, 상단 제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 연준 매파 기조 경계감은 상방 리스크이나, 견조한 수출 성장세, 한은 중립적 매파 대응 전망 등 대내 요인이 이를 상쇄할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67	1,485 ^(F)	1,450 ^(F)	1,400 ^(F)

- 연준 정책 우선순위가 고용에서 물가 안정으로 다시 옮겨가는 양상. 특히 출범을 앞둔 워시 의장 체제에서도 중등 리스크로 에너지 가격 불안 이어진다면, 연준의 매파적 기조는 더욱 굳어지며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주요 동인이 될 전망**
 - 4월 FOMC의 금리동결은 예상에 부합했으나, 인플레이션 리스크 고려한 듯한 워원 4분의 1의 추가 인하 가능성 관련 문구 삭제 주장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평가를 고려하면 인하 사이클 종료되었을 가능성 높아 보임. 또한, 파월 의장이 중립 스탠스 강조하면서도 인상 가능성 배제하지 않은 점에서 시장 내 긴축 경계감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워시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어가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 하에 비둘기파적 행보 보일 것이란 전망은 강 달러 제한할 수 있겠으나, 중등 불확실성 및 고유가 지속 시 연준 내 매파 성향 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달러 강세 압력 우위 예상
- 미-이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충돌 우려 잦아든 안도감에 금융시장 민감도 완화된 점은 환율 상단 제한 요인. 한편, 일본 당국 실개입에도 엔화 강세 제한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원화 영향 제한될 전망**
 - 예상대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달러 대비 주요 통화들의 약세 흐름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양측 모두 극단적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안도감 속에 중등 전쟁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약세 폭 제한적일 전망
 - 최근 엔화 160엔 돌파 후 일본 외환당국의 전격적인 실개입 단행으로 150엔 중반까지 급락한 가운데, 당국은 추가 개입 가능성 시사. 하지만, 중동발 불확실성이 여전히 엔화 강세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달러 경유한 원화 영향력 또한 크지 않을 전망
- 중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물가 관리에 중점을 둔 한은 중립적 매파 기조 예상 등 대내 요인은 원화 가치를 견고하게 지지하며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 중등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속에 우리나라 4월 수출이 전년대비 48% 증가하는 등 견고한 펀더멘털이 다시 한번 입증된 점은 대외 악재로 인한 환율 상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가 100달러대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며 국내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5월 금통위의 매파적 대응이 전망됨. 이는 연준의 매파적 행보로 인한 한-미 금리 격차 확대 우려를 제어하며,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5월 달러/원 환율
1,455~1,485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의 물가 중시 기조 속 매파 성향 강화에 대한 시장 경계감 미-이란 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가 견인하는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와 달러 수급 개선 기대감 고유가 여파 속 한은의 매파 기조 강화 가능성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화 전망

BOI 물가 전망 상향에도 당분간 금리 동결 우위 예상과 유가리스크에 따른 경기 불안정성 속 교역 악화 우려 등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예상. 다만 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수순 전환 가능성 등은 약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4월 달러/엔 평균환율 : 159.2
4월 엔/원 평균환율 : 933.0

■ **(엔화 동향)** 트럼프 대통령의 對이란 강경 발언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일본 경제 펀더멘털 악화 우려가 확산되며 엔화는 160엔선 터치했으나, 이후 들려온 휴전 소식에 되돌림 시현. 중반, 미-이란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엔화는 159엔선을 중심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으나, 미-일 당국의 공동 구두개입 영향으로 상단은 제한된 형국. 후반, 4월 BOI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호키시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FOMC의 매파적 결과에 160엔 넘어선 후 일본 당국 실개입 영향 속 156엔대로 급락 마감

5월 엔/원 예상범위 : 925-940원

■ **(엔화 전망)** 4월 금정위에서 물가 전망치 1.9%에서 2.8%로 상향하면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한 측면이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여기에 중동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며 에너지 수입국 일본에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교역 조건 악화 우려 등도 엔화 약세 요인으로 보임. 다만, 물가 상승 압력 시 향후 통화 긴축 수순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엔화 약세 제한 요인으로 전망. BOI의 향후 일본 물가 전망치 상향에도 경기 부진 우려하는 측면의 금리 동결 결정 등은 엔화 약세 요인. 여기에 중동 분쟁 속 에너지 충격으로 인한 교역 조건 악화 우려도 엔화의 점진적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 강화 시 향후 BOI가 통화 긴축 수순으로 전환할 가능성 및 시장 기대 반영 등이 엔화 약세 제한할 가운데, 엔/원 환율은 원화 경제의 상대적 성장 우위에 따른 원화 강세 속 920원대 전후 예상

유로화 전망

중동전쟁 협상 모드에도 이전부터의 천연가스 등의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 가시권 근접 인식 등이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 다만, 독일 등 주요국 인플레이션 상승 전환에 따른 매파적 통화정책 가능성은 약세 제한 요인으로 예상

4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693
4월 유로/원 평균환율 : 1,736.4

■ **(유로화 동향)**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 기대감과 휴전 소식에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유로화는 강세 출발. 중반,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ECB의 매파적 행보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이 힘을 얻으며 유로화 강세 흐름 이어짐. 그러나 후반, 미-이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유로화는 상승폭 일부 반납, 하지만 매파적인 4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반영하며 1.17달러대에서 마감

5월 유로/원 예상범위 : 1,715~1,735원

■ **(유로 전망)** 중동 전쟁이 협상과정에 놓여있는 상황이나, 이전 유가 및 천연가스 상승 등의 영향이 성장 전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기 둔화가 가시권에 근접한 상황 등이 유로화 약세 전환에 영향을 미칠 전망. 다만, 최근 유가 불확실성 등에 따른 독일 등 주요국 인플레이션 상승 전환 등이 ECB의 매파적 통화정책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유로 약세 제한 요인으로 판단. 미-이란 중동전쟁이 장기 협상과정으로의 진입 상황에 놓인 과정에서 여전히 유가와 천연가스 등의 높은 변동 상황이 성장 전반의 부진을 견인하며 경기 둔화 가시권에 근접한 국면 등이 유로 약세에 영향 미칠 전망. 다만, 전쟁 이슈 여파에 독일 등 주요국 인플레이션 상승 전환 등이 ECB 매파적 통화정책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유로 약세 제한 요인으로 보임. 유로/원은 성장 우위에 따른 원화 상대적 강세에 평균 1,720원 전후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한국 휴장(노동절)	2
					[휴장] 한국, 중국, 홍콩(노동절) 안-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국제선 유통물류업 성장(18단계 → 33단계) OPEC+ 일일 원유 20.6만 배럴 증산 한 4월 수출/입(YoY +48.3%, +13.2%) 미 4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일 4월 도쿄 CPI(YoY +1.4%) 도쿄 근원 CPI(YoY +2.3%) S&P 글로벌 제조업 PMI[F]	
3	4	5 한국 휴장(어린이날)	6 지준일	7	8 미국 고용보고서	9
[휴장] 중국(노동절), 일본(녹색의 날) 유럽 정치 공동체(EP) 회의 : 유럽 안보, 에너지, 안정성 논의하는 정부 간 포럼 미국 시카고 송배전기기 전시회(~7) ACT 엑스포 2026(~7) 한 4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52.6) 유 4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5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19.2)	[휴장] 한국, 일본(어린이날), 중국(노동절) RBA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1%로 2연속 인상 RE+ 미국 신재생 에너지 박람회(~6) 세미콘 동남아시아 2026(~7) 미 3월 수출/입(YoY +4.2%, +4.3%), 무역수지 신규주택매매(MoM -17.6%)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6882k) 4월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휴장] 일본(대체휴일) 국제 인공지능대전 2026(~8)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EPTK)(~8) 한 4월 CPI(MoM +0.3%, YoY +2.2%) CPI 근원(YoY +2.2%) 미 4월 ADP취업자 변동(62k) 중 4월 레이팅독 종합, 서비스업 PMI(51.5, 52.1) 유 3월 PPI(MoM -0.7%, YoY -3.0%) 4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영글랜드 지방선거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웨일스 총선 BOJ 3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 미 3월 소비자신용지수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 뉴욕 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3.4%) 유 3월 소매판매(MoM -0.2%, YoY +1.7%)	[휴장] FAO 세계 식량가격지수 발표 한국전자제조산업전,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10) 국제 기후테크 공기업 박람회(~10) 한 3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4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178k) 민간 부문 고용자수 변동(186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3%) 5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4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F]		
10	11	12 MSCI 분기 리뷰, 미 CPI	13 미 PPI	14 옵션만기일, 미중 정상회담(~15)	15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	16
[기업] 피스피스튜디오 수요예측(~15) [기업] 코스모로보틱스 코스닥 상장 [채권]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2026 PATA 연차 총회(~13) 한 5월 1~10월 수출/입(YoY +36.7%, +12.7%) 미 4월 기준주택매매(MoM -3.6%) 중 4월 CPI(YoY +1.0%), PPI(YoY +0.5%)	MSCI 분기 리뷰 : 실제 리밸런싱은 5/29일 장마감 후 진행 BOJ 4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 [채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발표 미 4월 연방재정수지, NHB 소기업 낙관지수 (95.8) CPI(MoM +0.9%, YoY +3.3%) CPI 근원(MoM +0.2%, YoY +2.6%) 유 5월 ZEW 경기전망지수 일 3월 섀넥스, 동행지수[P]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중국 국제 배터리 박람회(CIBF)(~15) 대한민국 기계설비 전시회(~15) 한 3월 통화공급 M2(MoM +0.0%) 4월 실업률(2.7%) 미 4월 PPI(MoM +0.5%, YoY +4.0%) PPI 근원(MoM +0.1%, YoY +3.8%) 유 3월 산업생산(MoM +0.4%, YoY -0.6%) 1Q GDP[S](QoQ +0.2%, YoY +1.2%) 일 4월 경기관찰조사 현황(42.2)	한국 옵션만기일 미중 정상회담(~15) 미 4월 수입물가(MoM +0.8%, YoY +2.1%) 수출물가(MoM +1.6%, YoY +5.6%) 소매판매(MoM +1.7%) 근원 소매판매(MoM +1.9%) 일 4월 통화량 M2(YoY +2.0%) 영국 GDP 성장률(잠정) YoY	미국 옵션만기일 파월 연준 의장 임기 만료일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 한 4월 수입물가(MoM +1.6%, YoY +18.4%) 수출물가(MoM +1.6%, YoY +28.7%) 미 4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5월 뉴욕 엔지니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11) 일 4월 PPI(MoM +0.8%, YoY +2.6%)		
17	18	19 구글 I/O(~20)	20 엔비디아 실적 발표	21	2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23
[기업] 퍼스텍 수요예측(~22) AABC Europe 2026(~21) 일본 도쿄 뷰티월드 박람회(~20) 중국 상하이 국제 식품 박람회(~20) 오만 무스카트 석유 에너지 박람회(~20) 미 5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14) NAHB 주택시장지수(34) 중 4월 기준주택가격(MoM -0.2%), 광공업 생산 신규주택가격, 실업률(5.4%) 소매판매(YoY +1.7%)	구글 I/O 2026(~20) : 구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AI-안드로이드17 공개 [기업] 레몬엘스케어 수요예측(~26)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전력 콩그레스(~21) 미 4월 미결주택매매 5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유 3월 무역수지 일 3월 광공업생산[P], 설비가동률, 3차산업지수 1Q GDP[P](QoQ +1.3%, YoY +3.4%)	FOMC 4월 의사록 공개 [기업] 매드업 수요예측(~27) [기업] 마키나릭스 코스닥 상장 AWS 서밋 서울(~21) 싱가포르 CMMA 정보통신 박람회(~22) UAE 두바이 위성통신기자재 전시회(~22) 유 4월 CPI[F](YoY +2.6%) CPI 근원[F](YoY +2.3%)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22) 미국 ASCO 초록(abstracts) 본문 공개 한 4월 PPI(YoY +4.1%) 5월 1~20월 수출/입(YoY +49.4%, +17.7%) 미 4월 주택착공건수, 건축여가[P]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유 3월 건설 생산(MoM -0.2%)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삼성전자, SK이노비스) 제18회 서울제조페스티벌 2026(~24) 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5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현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4월 전국, 국내 CPI		
24/31	25 한국 휴장(대체휴일)	26	27	28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미 PCE	29 미국 ASCO(~6/2)	30
[휴장] 한국(대체 휴일), 미국(메모리얼 데이) 미 4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국민참여연 국민성장펀드 출시 :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부 주도 정책형 펀드 ECTC 2026(전자부품기술학회)(~29) : 인텔, TSMC, IBM, AMD 등 기업들 참여. 반도체 유통 및 소재-부품 기업 관심 2026 중국 상하이 국제 관광 박람회(~28) 미 3월 FHFA 주택가격지수 5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유럽 AI 및 기술 컨퍼런스(~28) 일본 도쿄 우주 산업 박람회(~29) 일본 요코야마 자동차공학 박람회(~29) 미 5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리치몬드 연준 경기현황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4월 PPI 서비스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경제전망)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로 7연속 동결 롯데제과, 여수공장 생산 재개 미 4월 PCE, PCE 근원, 내구재 주문[P]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신규주택매매 1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S] 유 5월 소비자자기대지수[F]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6/2) : 세계 3대 암학회, 2/3상 등 후기 임상 데이터 주목 아시아 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31) :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시아 안보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안보 현안과 국방 협력 논의 [건설] 주택건설 실적 통계(분양, 인허가, 착공 등) 한 4월 광공업생산 미 5월 MNI 시카고 PMI 일 4월 실업률, 소매판매, 광공업생산[P] 5월 도쿄 CPI, 도쿄 근원 CPI 소비자기대지수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